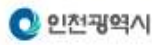
		<b>보 도 자 료</b>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	
		배포일자	2021년 4월 20일(화) 총 3매		
담당 부서	대기보전과	담당자	• 대기개선팀장 이용배 ☎440-3521 • 담당자 김양숙 ☎440-3522	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## 인천시, 미세먼지 농도 ‘ 좋음 ’ 일수 늘었다.

- 수송·건설·발전소 등 8개 분야 ‘미세먼지 계절관리제’ 강력시행 효과 등으로 분석 -
- 최근 3년 평균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  $2\mu\text{g}/\text{m}^3$  감소 -
- 나쁨 일수 22일로 최근 3년 평균인 31일보다 9일 감소, 좋음 일수 11일 증가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에 강화된 저감 및 관리정책을 시행하는 ‘미세먼지 계절관리제’를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4개월간 시행해 초미세먼지(PM2.5) 농도가  $26\mu\text{g}/\text{m}^3$ 로 최근 3년 평균( $28\mu\text{g}/\text{m}^3$ ) 대비  $2\mu\text{g}/\text{m}^3$  감소했다고 밝혔다.

특히, 나쁨 일수( $35\mu\text{g}/\text{m}^3$  초과)는 22일로 최근 3년 평균인 31일보다 9일 감소(29% 감소)했으며, 좋음 일수( $15\mu\text{g}/\text{m}^3$  이하)도 38일로 같은 기간(27일) 대비 11일 증가(40.7% 증가)했다.

시는 특히, 3월 대기정체 등에 따른 고농도 발생으로 인한 비상저감 조치 3회 발령 및 대규모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된 점, 최근 중국 공장 가동률의 증가 등 대기질 개선에 불리하게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

개선효과가 나타난 것은 계절관리제 정책효과, 인천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, 코로나19 등 기타 국내외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했다.

계절관리제 기간 중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총 45개소의 건설공사장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‘미세먼지 원격 감시시스템 운영’ 및 관내 총량관리사업장 43개소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5%이상 추가 감축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추가 감축을 유도했다.

또한 석탄화력발전기 2기는 운영을 정지하고 4기는 출력을 80%만 가동하는 상한제약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전년 동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60.3톤 감축했다.

그 외 ▲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 ▲ 도로먼지 제거 용역을 통한 집중관리도로 청소 강화 ▲ 발전·정유사 등 다량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협약을 통한 추가 감축 유도 ▲ 대기오염배출사업장 집중 감시 ▲ 집중관리도로 확대 지정·운영 ▲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▲ 농촌 영농폐기물 및 영농잔재물 불법 소각 방지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했다.

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“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황사 등 불리한 상황에서도 시민들과 관내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다.” 며 “향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 라고 말했다.

〈붙임〉 관련사진 및 포스터

